



문학환경과 결사슬문학의 이해

1주차. 문학환경과 결사슬 문학의 구조

‘문학’

- 19세기를 전후하여 문학은 특수한 형태의 저작물을 의미 (시/소설NOVEL/극 장르를 포괄하는 글)
 - 중세의 ‘문학인’ : 전사자(scripiter), 편찬자(compilator), 주석자(commentator),
저자(author)
 - 문학인은 후원자(파트롱)의 예속적 처지로부터 일반독자들과 형식적으로 동등한 지위의 사회적 독립성 획득
 - 예술의 독립성(전문성)에 대한 관념, 개성 중시, 문학의 독자성
 - ‘저자’라는 개념에는 ‘작품’에 대한 특권적 소유 개념이 결착
- “중세를 벗어나는 시점에서, (...) 우리 사회가 개인을, 인간 개성의 특권적 지위를 발견해 감에 따라 만들어진 근대적 인물” (롤랑 바르트)

‘문학’

- 문학이란,
 - 1) 사상/감정을 상상의 힘을 통해 문자/언어(the letters/language)로 나타낸 예술 작품
 - 2) 문자를 ‘미적’으로 표현한 것

[미적 조건]

*허구(fiction) → (현실과 다른, 완벽한) ‘미지’의 세계에 대한 갈망 (*소설 같은 일)

문학(예술)은 우리가 ‘바라보는’ 세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, 우리가 ‘구축한’ 세계에서 시작

*형상성(figurability) → 생생하게, ‘형상’처럼 느끼게 하는 것 (간접적인 언어를 통해 직접적인 실재의 세계로)

문자로 구축한 세계가 실재(reality)와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

- 문학의 조건과 근대성modernity

- 1) 세계와의 단절
 - 2) 개인성 (individuality)
 - 3) 자기지시성(self-referentiality)
-

1) 세계와의 단절

- 문학은 인간(개인)의 존재론적 ‘불안’에서 출발

“별이 총총한 하늘이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들의 지도인 시대, 별빛이 그 길들을 흰히 밝혀주는 시대는 복되도다.” (루카치)

“저 우주의 무한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.” (파스칼)

- 불안을 자유를 향한 탐험으로 전환
 - 근대(Modernity)의 기원적 이념들(자유/평등/박애)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망
 - 실패 혹은 시행착오 → 진취적, 반성적
-

- 근대는 인간(‘개인’)이 세계의 주체가 되는 시대
 - 르네상스 Renaissance 문예부흥 : 15~16세기 (이탈리아→유럽전역)
 - ‘중세(Moyen Age)’의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을 소거하고 그리스·로마 시대(인간 세계의 원형으로 간주된) 문화를 재생시키고자 하는 열망 *휴머니즘
 - 원근법(perspective)의 부활: 인간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기
 - 세계의 발견: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의 ‘서인도제도’ 발견(1492)
 - 인쇄술의 발전
-

2) 개인성(individualit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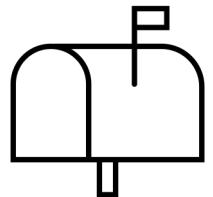
- 집단주의 언어/문화, 선전선동 문예 등 보편적 대의를 주장하는 것과 구별

가난하고 천대받는 우리가 살길은 혁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혁명을 해야 원수를 갚고 나라를 찾을 수 있으며 장차 잘 살 수도 있게 됩니다. 오늘과 같이 유격대가 총을 들고 우리의 앞길을 헤쳐가고 우리들이 목숨 걸고 싸워갈 때 피바다에 잠긴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될 것이며 광복의 새 아침은 밝아올 것입니다. 여러분 혁명을 합시다. 혁명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.

-『피바다』

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.
늘 그대 뒤를 따르던
길 문득 사라지고
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
여기저기서 어린 날
우리과 놀아주던 돌들이
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.
사랑한다 사랑한다,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
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.
성긴 눈 날린다.
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
눈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
몇 송이 눈.

황동규, <조그만 사랑 노래>



3) 자기지시성(self-referentiality)

- ‘허구’에 대한 자의식
- 일상 언어에 대한 배반 혹은 극복

“문학이라는 대상은 비록 언어를 <거쳐서> 시련되기는 하지만 언어 <속에서>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. 반대로 그것은 원래가 침묵이며 말에 대한 거역이다.” (사르트르, 문학이란 무엇인가)

- 독자적이고 고유한 세계 (**의미에서 존재로**) : 자율성
 - *문학적 진실 : 작가의 주관적 체험이 개입된 진실

문학성 literariness

- 문학을 문학으로 있게 하는 고유의 물질적 성질
 - 20세기 초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에 의해 최초로 개념화되고, 1950-60년대 프랑스 구조주의 문학 이론을 통해 일반화된 개념
 - * 여타의 다른 담론과 구분 되는 ‘문학 언어’만의 제한적인 특수성을 지칭
 - “특정 작품을 문학 작품이게 하는 것”(로만 야콥슨)
 - 문학은 주변의 다양한 문화적 움직임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점에서, ‘문학성’의 기준 또한 고정되지 않음
-

문학의 진화

- 진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독자의 기대
 - 모든 시대는 그 시대에 맞는 역사적/사회적 요구가 있으며 독자들은 이 요구를 문학장르에 대한 기대를 통해 표현
 - * 시민 비극 Trauerspiel : 귀족, 영웅들의 모험이 아닌 시민 계층의 삶을 다룸
 - * 19세기 말 영국의 탐정소설 : 치안에 대한 안정 욕구
-

문학의 진화

“반복해서 강조할 점은, ‘문학’이라는 범주가 영원불변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‘객관적’이라는 환상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사실이다. 어떤 것도 문학이 될 수 있으며, 변함없고 의문의 여지없이 문학이라 여겨진 것들이 더 이상 문학이 아닐 수 있다. 말하자면 이른바 문학의 정전canon이나 ‘국민문학’의 의문의 여지 없는 ‘위대한 전통’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기에 특별한 이유로 특수한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‘구성물’로서 인식되어야 한다. (...) 그러니까 문학을 ‘객관적이고’ 기술적 범주로 보아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문학은 그저 사람들이 문학이라 부르기로 제멋대로 정한 것만도 아니다. (...) 가치판단들은 궁극적으로 단지 개인적 취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집단들이 다른 사회집단들에 대해 힘을 행사하고 또 그 힘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의거하는 전제들을 가리킨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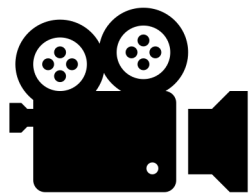
-테리 이글턴, <문학이론 입문>

➔ 문학이라고 간주되는 장르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로서 변화함

문학 환경과 매체

- 문학은 문자 이외의 표현 양식과 교류하며, 새로운 '매체'의 등장과 더불어 형질을 바꾸면서 변화/발전
 - 새로운 기술매체의 등장은 '글쓰기'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
 -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인쇄 매체 -> 글쓰는 인간 주체와 글쓰기를 위한 인간 외적 매체 (기술 매체)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의 초기 단계
 - 18세기~19세기 타자기 -> 자유로운 전업 문학 생산자가 독립적인 지위를 얻게 되고, 글쓰기 작업에 기계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계기를 마련
*시문학 Dichtung에서 문학Literatur으로 (프리드리히 쾰러)
 - 20세기~ 영화를 비롯한 각종 영상/기술매체 -> 문학의 서술 기법에 영향
-

문학과 영화



“문학은 영화에 너무나 많은 것을 기여했으며 문학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시각 예술” (에이젠슈타인)

- 문학과 영화 모두 서사(내러티브)가 있는 예술로서 친연성을 지니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
 - ➔ 영화적 의식은 문학 독자로 하여금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특질에 새롭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, 문학적 (읽기) 훈련은 영화를 깊이 이해하게 함
 - ‘영화의 도래가 서사 기법의 새로운 영역을 광범위하게 변화시킬 것’ (톨스토이)
-

영화-몽타주montage

회전 손잡이가 달린 이 딸각대는 새로운 기계가 우리 생활 특히 작가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. 이 기계는 문학의 오래된 방식을 직접 공격하고 있다. 우리는 스크린과 차가운 영사기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. 새로운 글쓰기는 필연적이다. (...) 장면의 빠른 전환, 감정과 경험의 혼합 등은 재미없고 장황한 글쓰기보다 훨씬 낫다. (...) 내가 희곡 <살아있는 시체 The Living Corpse>를 집필할 때 사건의 빠른 전개를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장면과 그림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머리를 쥐어짜며 괴로워했다. (...) 내가 상상해낸 장면들을 재현하는 데 필요한 무대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생동감 있는 빠른 전개는 불가능했다. (...) 그런데 영화라니! 영화는 굉장하다! “드르르!” 하면서 한 장면이 준비되고 “드르르!” 하면 곧 다른 장면이 나온다! 우리는 바다, 해변, 도시, 궁전을 모두 본다. (톨스토이Tolstoy, 1908)

- 몽타주 : 편집자/감독이 미리 결정한 구상에 따라 다양하게 촬영한 장면들(shot)을 배치한 것.
 - 몽타주로 인해 영화에는 연속적인 일련의 장면, 즉 서사가 가능해진다
 - ➔몽타주가 없다면 영화에는 단일하고 연속적인 시간과 공간의 정확한 재생만이 있을 뿐
 - 영화의 몽타주는 인간의 감정과 정신이 움직이는 과정의 구조를 보여준다
 - ➔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의 이동과 그로 인한 공간적 변형은 인간의 사고/감정이 얼마나 빠르고 자유롭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(다중관점, 동시성)
 - 1920년대 작가들은 영화의 몽타주 기법을 빌려 소설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병치하면서도 단일한 관점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
-



문학 환경과 매체

- 1990년대 PC통신의 발달로 SF, 무협, 추리소설과 같은 장르문학이 활발하게 창작
 - ➔ 본격 문학으로 간주된 서사의 영역을 확장하고, 나아가 기존 '문학성'에 대한 통념을 해체
- 가상공간의 높은 접근성/동시간성은 창작자와 수용자의 모습을 기존과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음
 - ➔ 장르문학/대중문학 텍스트에 대한 재인식
- 2007년 애플의 아이폰 iPhone 발표 이후 언제 어디서든 사이버 가상 세계에 접속 가능해짐
 - ➔ '리얼리티'의 확장 (메타버스 Metaverse)

웹소설

- 웹소설은 '매체성'에 중심을 둔 개념
- 종이책 -> 전자책
- 완성형 매체로서의 단행본 전자책 -> 비완결형 스토리 콘텐츠 (회당 결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수익구조 모델. 출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인터넷 소설과 차이)
- ➔작법의 변화.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쉬운 문장과 대화 중심의 빠른 사건 전개 (가독성) *스낵컬처 Snack Culture
- ➔일러스트와 연계 ('보는' 소설)
- ➔챌린지리그 (조회수, 인기도가 유일한 척도) 독자(소비자)에서 작가(창작자)로
- 웹소설의 등장은 출판시장과 창작방법, 독서형태 등의 변화한 현실을 보여줌



구르미 그린 달빛

로맨스 | 윤희수 · kk | 화, 금 연재 | 책 오디오북

★ 9.93 다운로드 1,670만

19세기, 조선. 여인과 관련한 일이라면 해결 못하는 일이 없는 '여자문제 고민상담 전문가' 삼봉이는 사실 남장여인이다. 어느 날 우연히 만난 화초서생으로 인해 말자에도 없는 환관까지 되었으니..... 철저한 금녀(禁女)의 구역. 환관들의 은밀한 세상에 한 여인이 뛰어 들었다. 그녀의 고민 상담에 구중구중이 들썩이기 시작한다.

첫화보기

시리즈 전체보기

42,872
관심 11만
217
공유

태그 #로맨스

작품 회차 (7)

최신순 | 1화부터



시리즈 웹 완결작 전체보기! 지금 바로 124화를 보실 수 있어요!

보기 >



1. 운종가 삼봉이

★ 9.9 댓글 823 2013.10.04

작가의 다른 작품 >



간택-왕들의 선택
로맨스 총 8화
★ 9.98 관심 3만



해시의 신루
로맨스 총 13화
★ 9.96 관심 6만

본격문학과 그 주변

- 주변문학/대중문학의 발생은 새로운 문학 향유자들의 출현과 밀접
 - 보편화된 교육으로 문자 해독 능력을 갖춘 인구가 팽창하고, 지적 사유의 촉발이 아닌 즉각적인 재미와 감동을 요구하는 독자층이 늘어나기 시작
 - ‘주변’문학이란 그런 의미에서 기준에 미달한다는 멸칭 (‘대중’이라는 말을 통해 기존 제도권 문학과 구별) *탐구 정신, 예술적 감각, 독창성의 결여, 문체, 세계관의 부재...
 - 현대의 대중문학 독자는 사회 계층이 아닌 취향에 따라 분류 (진지한 독자와 가벼운 독서)
-

“문학이 윤리적/지적인 과제를 짊어지기 때문에 영향력을 갖는 시대는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. 그 잔영이 있을 뿐입니다.”

“문학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과 문학이 도덕적 과제를 짊어지는 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 과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다면, 문학은 그저 오락이 되는 것입니다. (...) 근대문학을 만든 소설이라는 형식은 역사적인 것이어서, 이미 그 역할을 완전히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”

-가라타니 고진, <<근대문학의 종언>>(2006)

- IMF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시장전체주의의 체제로 재편
 - ‘가능성’의 소멸 -> 무력하고 왜소한 주체(공상, 망상...) cf. ‘88만원 세대’
 - 문학의 사회적/시대적 역할 축소 *문제적 주체의 소멸
 - 소설이라는 장르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났던 ‘개혁정신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
 - ‘근대문학의 종언’은 결국 근대문학이 사회(공동체)를 (재)구성하고 변화시키거나 유지시키는 도덕적 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‘오락’으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
-

- 오늘 날 장르문학이 갖춘 대중성, 엔터테인먼트 양식으로서의 특징들은 자본주의적 '문학 시장'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두루 갖춘
 - 출판사가 문학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고, 작가들의 '문학하기'의 조건이 변화되면서 본격문학과 장르문학 간의 명확한 경계가 허물어져가는 추세
 - 특히 SF문학의 경우, 1) 우주여행이 가시화되고, 2) AI 기술이 상용화되며, 3) 전 지구적 기후 변화를 목도하는 인류세의 시대에 진보/발전을 근간으로 한 근대적 가치관을 주시하고 반성하는 흐름과 더불어 새로이 주목
-